

# 도반과 함께 '색깔' 찾다

## 불교 시민단체 활동가 만해마을서 워크숍

통일·환경·생명·복지·신경 등의 불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80여명의 활동가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아카데미 주관한 가운데 8월 26~28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된 '색깔 있는 조직 만들기-2005 불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이하 활동가 워크숍)에서다.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한비탕 어우러지다!

지난해 3월 12~14일 열린 제1회 활동가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지만 새롭게 만나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간단한 입석식에 이어 여색함을 풀기 위한 어울림 시간. 활동가와 가족들이 '올챙이송'과 '정글송' 노래에 맞춰 율동을 시작했다. 50대 대신배와 20대 '초보' 활동가, 아빠와 딸, 남편과 아내가 손짓과 발짓을 하며 한데 어우러져 어느새 '도반'으로 거듭난다.

### #조직 정체성 진단

이영철 소장 NGO미래경영연구소장의 '색깔 있는 조직만들기' 강연시간.



불교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에 참가한 활동가와 가족들이 어우러져 율동을 하고 있다.

1차 활동가 워크숍에서 '평생운동을 막는 장애요인 찾기'와 '2010년의 자기모습 그려보기' 등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했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조직' 차원으로 옮긴 것이다.

활동가들은 '색깔 있는 조직 만들기 진단서'에 각 단체별로 자가 진단을 먼저 한다. 진단 결과 대부분의 단체들이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철 소장은 △단체의 핵심역량과 새로운 가치를 결합시켜 대중화를 실현하고 △불교계 내 새로운 영

역 개발을 통한 활동 △불교계 내의 환경 분석을 통한 정체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의사소통이 문제다

둘째날 활동가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는 불교단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맞닥뜨리는 내부 문제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Win-Win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좌담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용기 정책실장은 단체 내에서의 출제가 관계와 활동가 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

야할 과제라며 운을 뚫었다. 이에 대해 조계사 이우용 포교계장은 "사찰과 단체 모두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자주 바뀌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민정희 국제협력국장은 "단체별로 자자와 포살을 활성화시킨다면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활동가들의 동의가 이끌어내기도 했다.

### #가족은 든든한 후원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가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 워크숍에서 만난 가족들의 '힘'은 대단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용기 정책실장의 부인 홍경희(37)씨는 불교계 언론에 근무하다 단체로 자리를 옮긴 정 실장이 바야흐로 첫 월급을 잊지 못했다. 딱 절반의 월급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8살과 4살인 두 딸이 자리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누구보다 적극적인 후원자가 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손 국장이 10년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인 김인숙(42)씨와 딸 자영(10)양의 뒷받침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인제·유철주 기자

## 지울스님, 천성산 조사 활동 거부 합의정신 깬 시설공단 자료집 발간에 항의

8월 30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위한 시추가 시작됐다. 지난 2월 지울스님이 100일 단식을 회향하며 정부와 공동 조사를 합의한 후 6개월만이다.

오후 2시 30분경 시추가 시작된 울산시 삼덕공원묘지 인근 시추 현장에는 구조지질, 지하수, 생태계, 암반공학, 지구물리탐사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고속철도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시추를 지켜봤다(사진).

그러나 지울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문기관, 법조계, 학계 등에 배포한 '천성산 공사 관련 자료집'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다 여론 물의를 위한 작업임에도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자, 지울스님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공동조사의 합의정신을 깬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지울스님 공동조사단 활동은 하지 않되, 고속철도공단의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과 합의정신을 깬 자료집 배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지울스님이 빠진 상황에서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



지 3개월간 유주근, 양산 대성암, 조계암, 천성산 등 총 11군데를 시추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추 조사는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순간 충격 시험, 공내수질검증, 공내유향유속측정, 텔레뷰어시험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동조사의 의미가 크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울산=천미희 기자

## 북관대첩비 한국 온다 9월말 확정... 10월 반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정문부 장군과 함경도 지역 의병을 기리기 위해 1709년 세워진 북관대첩비가 10월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조산 스님은 8월 31일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 이사차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이 최종 확정된다'며 "반환 시기는 늦어도 10월 중순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산 스님과 열린우리당 김원웅,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은 8월 30일 개성에서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10월 반환에 맞춰 '한민족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북관대첩비가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서울 도착 및 전시 행사, 개성에서의 북측 인도행사, 김주 복원 행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철주 기자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 인천 고교 순회공연

인천 무형문화재 법패와 작법무예능보유자 능화 스님은 9월 3일 계산여고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 인화부고 축제(3일), 무형문화재전승공연(10월 1~2일), 청학공고(12일), 부평여자공고(20일), 인천기계공고(28일) 등에서 공연한다.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예술활동에서는 법패와 작법무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춤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선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의상 및 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과 전통춤의 거리를 좁힐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 허허당 향훈 스님 선행 부다피아 갤러리 오픈

선화가 허허당 향훈 스님의 갤러리 '허허당이 본 화엄세계(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_000000005)'가 부다피아 갤러리에 마련됐다.

9월 1일 오픈한 허허당 스님의 갤러리는 30여개의 선화를 우선 선보이고 있다. 선화와 함께 스님의 만행일기도 접할 수 있다. 허허당 스님은 1978년 붓을 잡기 시작해 지리산 벽송사 방장선원에서 선수행과 함께 본격적인 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지연 기자

## 이웃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9월 18일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예년과 같이 불교계 각 복지관에서 사회 소외 계층과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추석 행사를 준비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추석 떡' 송편 빚기다. 이를 위해 복지관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을 지원하고 함께 떡을 빚는 시간을 마련해 명절의 훈훈함을 함

께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특색 있는 행사도 눈에 띈다. 동여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우석)은 9월 15일 '할매할매 선발대회'를 열어 복지관 홍보 모델을 정하게 된다.

한편 추석 준비에 한창인 복지관들은 생필품 및 추석 응품 등의 후원 물품을 지원할 자비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김강진 기자

## 불교박람회 참가 접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교산업 전문전시회 '2006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서 8월 25일부터 참가 접수를 시작해 선착순 마감한다.

불교방송과 제이 컨벤션(j.convention)이 공동 주최하는 '2006 한국불교박람회'는 기존 불교산업 관련업체들의 판로확대는 물론 새로운 불교시장 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06년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장 전관에서 열리는 '2006 한국불교박람회'에는 '사찰건축 및 현대 단교' '전통차, 웰빙관' '불교장례문화' '사찰행사기획' 등이 전시 될 계획이다.

한편 2006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은 최근 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org)를 오픈하고 행사 소개 및 참가·관람 안내 등을 시작했다. (02)736-0993 김지연 기자

## 목탁소리

한국불교에서 '선우논강'은 중요한 키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선우논강에서 제기한 문제는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비구니 팔경법' 등 공개적으로 논하기 꺼려

했던 불교계 은 낮부터 밤의 민감한 부분 늦게까지 자리를 지킨 참공문화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2회 선우논강도 '대법처경과 간화선'이란 주제로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실감케했다. 그러나 막상 논강이 시작되자 '여기가 선우논강 현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은 이미 2년 전 열렸던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7회 선우논강)'에 나왔던 발제문에서 상

## 맥빠진 선우논강

석자들에게 아쉬울만 던져주고 말했다. 건전한 토론은 민주사회를 지탱시키는 기초이듯, 건강한 논강은 한국불교의 바로미터이자 미래불교의 등불이다.

선우논강은 목적에서 "자주 모여 법에 대해 토론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강이 살아야 불교도 산다'는 신념으로 거듭나는 선우논강을 기대해 본다.

■이준업(호남 주재·부장)

# 청암사 승가대학 총 졸업식 및 불사회향 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불명산의 맑고 푸른 정기와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유서깊은 경학도량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제1회(1987년)~제20회(2005년) 총 졸업식 및 제5차 중창불사 회향 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방에서 정진 중인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고, 평소 청암사를 아껴주시는 대덕스님들 및 불자님들께서는 왕림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암사승가대학

학장 의정 지형 합장  
주지 의진 상덕 합장

청암사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전화 054)437-0038 / 팩스 054)437-9664 / 홈페이지 : www.chungamsa.org (한글도메인 : 청암사)

법회안내

- 날 짜 : 불기2549(2005)년 10월 2일(음 8. 29)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청암사 대웅전
- 문 의 : 청암사 중무소 (054)437-0038, 437-9665
- 홈페이지 : www.chungamsa.org (한글도메인 : 청암사)